



LGU+, 폴리텍VII대학과 스마트팩토리 산학협력
LG유플러스는 한국폴리텍VII대학 창원캠퍼스와 스마트팩토리 산학협력을 위한 산학협력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LG 유플러스



신한금융, 댄스스포츠연맹 공식 후원 계약

신한금융그룹은 1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대한민국댄스스포츠연맹과 후원 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왼쪽부터)댄스스포츠연맹 특별브레이크킹위원회 조성국 위원, 댄스스포츠연맹 김영호 회장,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 댄스스포츠연맹 특별브레이크킹위원회 황명찬 위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



현대차, 아동학대 현장출동차 '아이케어카' 전달

현대차그룹은 1일 서울 용산구에 소재한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한 '2021 아이케어카(CARE car) 전달식'을 가졌다. 이용우 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왼쪽부터), 윤희미 아동권리보장원 원장, 이병훈 현대차그룹 상무, 김경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본부장, 채성용 서울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차



농협은행, 디지털 신규 직원과 CEO 간담회

NH농협은행은 지난 31일 서울시 중구 본사에서 지난해 실시한 채용연계 인턴전형에서 선발된 7명의 디지털 분야 신규 직원들과 함께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NH농협은행 권준학 행장(오른쪽 네번째)이 신규 직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H농협은행

눈 뜨고 보기 힘든 '이건희 미술관' 유치 경쟁



홍경안의 시사일각

지자체들의 '이건희 미술관' 유치 경쟁이 접입가경이다. 삼성가(家)와의 온갖 연고를 내세워 유치 경쟁에 뛰어든 지방자치단체만 15곳이 넘고, 이들이 내세우는 미술관 유치의 당위성 역시 가지각색이다.

경주시는 민족 예술(?)의 발생지를 유치의 구실로 삼고 있으며, 경기 용인시와 평택시는 삼성전자 사업장 소재지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경남 의령군은 고 이병철 회장의 출생지라는 이유를, 경남 진주시와 전남 여수시는 고 이병철 회장이 유년시절을 보냈다는 것과 하트 모양의 섬을 매입했다는 것을 유치의 근거로 하고 있다.

다들 말 같지도 않은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기증자의 취지와 목적을 고민하거나 기증품의 가치, 학술연구 계획 등을 꼼꼼히 따진 결과로 유

치의 합당함을 인정받을 만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합리적 이혜나 공감도 불가능하다. 문화적, 역사적, 미술사적 맥락 내에서 재구성 되어야 할 기증품임에도 그들에게 단지 어떻게 하면 임기중 무라도 하나 그럴싸한 성과로 포장할 수 있을까 싶은 정치적 목적만 부유하고 있으니 당연한 결과다.

'이건희 미술관'을 서로 차지하려는 이 벌건 지자체들의 양태에 한뎀한 건 정부의 단순함과 안일함이다. 자생적 혹은 자발적 논의로 비롯된 게 아닌 "별도의 전시실이나 특별관을 설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라"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조선 임금 어명 받들 듯 서둘러 '이건희 미술관' 신설 계획을 내놓은 정부의 치밀하지 못한 태도가 문제의 발단인 셈이다.

사안을 쉽게 바라본 정부의 사고도 한심하지만 지역균형발전과 문화 분권을 불모로 한 업적 과시, 홍보 수단으로서의 미술관 건립이라는 뻔한 계산이 깔린 지자체들의 모습 또한 목불인견이다. 그들은 이견

희 삼성그룹 회장 유족이 기증한 2만 3천여 점 미술품과 문화재는 정치꾼들의 성과지표로 대체되기에 딱 좋은 아이템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모르는 줄 안다.

사실 지자체의 다수는 삼성가에서 기증한 국보와 보물급 작품을 품을 수준이 안된다. 지자체장들은 자기 지역에 있는 미술관 전장에서 물이 새고 소장품을 전문적으로 연구·관리하는 부서조차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혹은 알면서도 무시경하다.) 연간 소장품 구입예산을 단 1원도 주지 않는 공립미술관이 있고, 학예사라야 아무리 꼽아도 손가락이 남아도는 게 현실이다.

그뿐이라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갖다 줘도 당장 배부터 갈라 먹는 게 그들이요, 남루한 미의식을 자랑하듯 조악한 조형물 앞에서 사진이나 찍고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이 청주인지 충주인지도 몰라 방송에서 헛소리를 늘어놓는 게 업연한 현주소다. 그럼에도 공짜라니 양젓물도 마실 기세다.

욕심 내지 말고 있는 것이라도 제대로 운영해라. 정치적 관점에서 벗어나 시민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진정성 아래 기존의 것에 어떤 내용을 어떻게 담을 지부터 고민하는 게 순서다. 능력도 안되면서 과욕을 부리면 체하는 법이다. 덧붙여, 문화예술에 관한 전문성이라곤 거의 없는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도 이참에 자중할 필요가 있다. 황 장관은 최근 '국민 접근성'을 이유로 미술관을 지방에 둘 경우 '빌바오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수도권 입지 발언으로 지자체 간 갈등을 부추겼다.

빌바오 효과는 엄밀히 말해 '구겐하임 효과(Guggenheim Effect)'이고, 세계 유명미술관 중 지방, 아니 거의 오지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자리 잡은 미술관은 셀 수 없이 많다. 얼마 전 미술관에 왜 수장고가 필요냐고 따지듯 묻던 문체부 직원이나 장관이나 어쩔 그리 무지할 수 있는지 신기할 정도다.

/미술평론가·DMZ문화예술매경 예술감독

'기생충' 봉준호 감독 등 6명 삼성호암상 수상

제31회 삼성호암상 시상식

호암재단이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2021년도 제31회 삼성호암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호암재단은 1일 올해 수상자가 ▲과학상 물리·수학부문 허준이 미스 테퍼드대 교수 ▲과학상 화학·생명 과학부문 강봉균 서울대 교수 ▲공학상 조경현 미 뉴욕대 교수 ▲의학상 이대열 미 존스홉킨스대 특훈교수 ▲예술상 봉준호 영화감독 ▲사회봉사상 이석로 방글라데시 꼬람 플라병원 원장 등이라고 밝혔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메달, 상금 3억



허준이 교수 과학상 물리·수학, 강봉균 교수 과학상 화학·생명, 조경현 교수 공학상, 이대열 교수 의학상, 봉준호 감독 예술상, 이석로 병원장 사회봉사상

원씩 총 18억 원이 수여됐다.

올해 행사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상자 부부, 호암재단 이사, 호암 상위원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해외 체류 중인 공학상, 의학상, 사회봉사상 수상자는 국내의 가족들이 대리 수상했다.

시상식은 김항식 호암재단 이사장의 인사말, 김기문 포스텍 교수의 심사보고, 부문별 시상과 수상소감,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의 축하 연주 순으로 진행됐고, 행사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했다.

김항식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국

내 과학계 발전을 격려, 응원하기 위해 과학상을 분리·확대한 첫 해에 국격을 높이고, 세상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온 훌륭한 분들을 수상자로 모시게 돼 큰 기쁨이자 자랑이다"라며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故 정상영 KCC 명예회장, 2000억 상당 유산 기부

인재양성, 문화예술 등 공익 지원 민족사관고·박물관건립 등 사용

고 정상영 KCC 명예회장(사진)과 유족들이 2000억원 상당의 유산을 기부하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했다.

KCC는 지난 1월30일 작고한 정



상영 명예회장의 유산 가운데 2000억원 상당의 보유 주식과 현물을 인재 양성을 위한 민족사관고등학교 지원 및 문화예술 공익사업인 박물관을 위해 사회에 환원키로했다고

1일 밝혔다.

정몽진 KCC회장, 정몽익 KCC글라스 회장, 정몽열 KCC건설 회장 등 유족들은 "생전에 기본에 충실하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산업보국'이 기업의 본질임을 거듭 강조한 고 정 명예회장의 뜻에 따라 다양한 사회환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유족들은 민족사관고등학교 장학제도 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말까지 100억원을 기부한다.

유족들은 또 융합기기 전문박물관 건립을 위해 서전문화재단법인에 고 정 명예회장의 유산과 유족들의 현물 지원을 합해 총 2000억원 상당을 기부한다.

/김승호 기자 bada@

인사

- ◆산은캐피탈 ◇상무 승진 △기업금융본부장 송성 △리스크관리책임자 전종국
◆ABL생명 ◇승진 △중부BA사업단장 최은실
◆대신증권 ◇상무보 신규선임 △Cover age본부장 이정훈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본부장 △미래

- 융합기술본부장 송준광 ◇센터장 △기계소재기술센터장 이의중 △신뢰성융합안전기기술센터장 김중명
◆BNK투자증권 ◇임원 선임 △리스크관리본부장 상무 한수동 ◇부사장 신규선임 △리스크심사2부 상무보 임종성 ◇이사대우 승진 △장외파생부장 김언목 △장외파생부 신우영
◆프레스맨 △경제부 금융부장 성승제

부음

- ▲안세기씨 별세, 안재영(ubc울산방송 보도국 부장)·재근(농협 경북지역본부 농촌지원단장)·재삼(울산 코엔텍 수처리팀 계장)씨 부친상= 1일, 경북 영주시 명품장례문화원 특2호실, 발인 3일 오전 9시 30분. 054-634-4444
▲최복진씨 별세, 최원상·최윤경 목사·최은

- 주(고려대병원 연구원)·최원규(조선일보 사회부장)·최원집(한외사)씨 부친상, 김광일(맨투맨서비스 근무)·김희재(피플라이프팀장)씨 장인상, 윤영희·곽정현(울촌수석연구원)씨 시부상, 31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3일 오전 7시15분, 02-3410-6915
▲이영숙씨 별세, 김진원(라자도코리아 자산운용 대표이사)·경아·은아씨 모친상 = 1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3호실(서

- 울 서초구 반포대로 222), 발인 3일 오전 9시, 장지 모란공원. 02-2258-5925
▲유택일씨 별세, 김영자(전 연세대 간호대학 동창회장)씨 남편상, 유기원·유기준·유미란씨 부친상, 윤동섭(연세의료원장)씨 장인상 = 5월31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3일 오전 7시, 장지 분당메모리얼파크. 02-2227-7550